

분류카드 사용법

분류카드란 무엇인가?

분류카드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요소들 종류별로 나누어 보여주는 사진 모음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이며 아이들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것들을 분류카드를 통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음식, 교통, 식물, 동물, 건물, 가구 등이 있습니다. 분류카드에는 주로 한 개의 개념만이 그려져 있으며, 배경을 최소화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분류카드는 3 세에서 6 세 사이의 아이에게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나이가 더 많은 아동들에게 다양하고 확장된 어휘와 개념을 소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 아이들의 흥미를 토대로 카드 범위는 점차 확장되며, 아이들이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분류 카드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고, 차후 성장하면서 공부하게 될 다양한 영역의 개념을 분류할 수 있게 준비 시켜줍니다.

준비: 카드를 종이에 인쇄하거나 화면에 표시

프린트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종이에 출력 후 안내사항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만약 종이에 출력할 수 없다면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런 후 아래에 설명된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활동 1: 그림 카드 사용

- 카드 한 세트를 선택한 뒤, 그림 카드 더미가 아래로 향하여 그림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 제일 위에 있는 그림 카드를 뒤집어 아이 앞에 내려놓으세요.
- 아이가 카드 속 대상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아이가 대상의 이름은 안다면, 해당 카드의 그림이 보이도록 작업 공간 (예: 책상, 매트 등) 위에 한 줄로 나열해 주세요.
- 아이가 카드 속 사물을 모른다면, 아이에게 명칭을 알려준 뒤 해당 카드를 이전 카드들에 이어서 나열하거나 아이 앞에 그대로 두고, 다음 카드를 그 위에 뒤집어 놓아주세요.
- 모든 카드가 나열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반복해 주세요.
- 그림카드를 최대 3 장까지 꺼내서 카드 속의 대상들의 명칭들을 알려주고, 그 명칭들을 사용하여 간단한 지시 게임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코끼리를 주세요”, “기린을 여기에 놓으세요”, “하마를 가리켜 주세요”, “기린은 어디에 있습니까?” ... 등의 지시를 합니다. (해당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각 카드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카드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면, 한 번에 한 개의 카드만을 가리키며 "이것은
- 아이에게 다시 모든 카드를 섞은 후, 카드를 한 장씩 나열함과 동시에 카드 속 대상의 명칭 말하도록 요청합니다.
- 카드 속 대상에서 제공하는 흥미로운 정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린은 목이 길어서 키가 큰 나무의 잎사귀를 먹을 수 있습니다.

활동 2: 그림 카드, 이름표, 정정 카드의 활용

- 카드를 한 열 또는 한 행에 하나씩 배열할 때, 아이가 사진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두 번째 열 또는 행에 카드를 나열해야 된다면, 두 열 또는 행 사이에 다른 카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미리 확보해 주세요.
- 아이에게 이름표를 제공하고, 이름표를 읽도록 요청하세요. (읽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름표를 읽은 후, 아이는 이름표에 상응하는 그림 밑에 해당 이름표를 둡니다.
-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정정 카드(그림과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카드)를 가져와서 일치하는 그림과 이름표 옆(또는 아래)에 정정 카드를 놓도록 지시합니다.
- 아이가 스스로 그림과 이름표가 맞게 짝 지어졌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틀린 경우, 이름표를 옮겨 올바른 사진을 다시 찾아 짝지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세트 내의 세 가지 유형의 카드(사진, 이름표, 사진 및 이름표가 있는 정정 카드)를 모두 섞은 후, 아이가 위의 활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합니다.

개별 활동

이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 한 후부터는, 아동 스스로 언제든지 이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름표 읽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인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낮은 선반이나 테이블에 몇 세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을 찾아 새로운 세트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단어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카드 중 하나를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쓰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에 있는 대상들 중 일부의 실제 예를 일상에서 찾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예: 집이나 정원에 있는 물건들, 나뭇잎, 주방 도구, 색깔, 비슷한 모양과 같은 카드와 일치하는 물건들). 더불어 분류카드는 아이들의 관심(곤충, 동물, 교통수단 등에 대한)의 불을 지필 수 있는데, 이러한 관심은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채워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만 3~6 세 아동들에게 분류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 정확한 단어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분류카드는 아이들이 자신 주변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탐구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 형태로 사물을 분류하는 것은 준비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실체' 형태로 확장 켜주고, 아이들의 실제 생활 일상과 연결해 주며, 동시에 경험으로 이루어진 사고의 영역과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채소(줄기)'카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카드로 식물의 각 부위 명칭을 알려줄 때이며, 두 번째는 3 단계 카드로 식물의 구성요소인 뿌리, 줄기, 잎, 꽃/열매의 개념을 탐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수준에서, 아이들은 뿌리, 잎, 꽃/열매로 이루어진 식물들을 더 탐구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탐구는 교사/가이드가 해당 카드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들이 사고하고 다양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 후, 교사/가이드가 비슷한 범주 내에서 다른 종류의 분류카드를 '찾아' 내어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분류카드는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배우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부차적으로 추가되는 학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점점 커지는 내적 호기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이의 호기심과 질문에 관련된 이야기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 탐구를 더 깊게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에게는 흥미로운 탐구 과정이 다른 아동에게는 흥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